2024 년 4 월 2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Market 김지현** jeehyun12@kiwoom.com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미 증시, 예상치 상회한 ISM 제조업지수에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1 일(월) 미국 증시는 PCE 물가를 소화하는 가운데, ISM 제조업지수 호조, 애틀랜타 연은 GDP 추정치 상향, 달러 강세, 10 년물 금리 상승 등 금리인하 전망이 위축되며 혼조세 (다우 -0.6%, S&P500 -0.2%, 나스닥 +0.11%) 통신(+1.5%), 에너지(+0.8%), IT(+0.2%) 강세, 부동산(-1.8%), 헬스케어(-0.9%), 산업재(-0.8%)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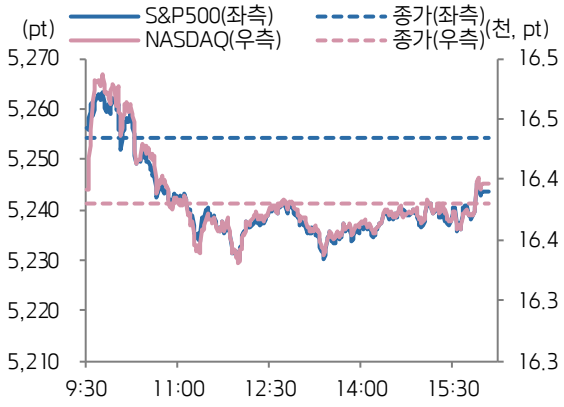
미국 3 월 ISM 제조업 지수는 50.3(예상 48.5, 전월 47.8) 기록하며 17 개월 만에 확장국면 진입. 신규 수주 전월 49.2 에서 51.4, 생산 48.4 에서 54.6 으로 기준선 상회. 고용 지수는 45.9 에서 47.4, 가격 지수는 52.5 에서 55.8 로 모두 상승. 집계측은 "수요는 긍정적이었고, 생산도 강화됐다"고 설명.

뉴욕 연은 인플레이션 지수는 1 월 3%에서 2 월 2.9%로 하락. 해당 지수는 가격 압력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22 년 6 월 5.43%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 애틀랜타 연은의 올해 1 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8%로 제시, 지난주 2.3% 대비 0.5%포인트 상향. 1 분기 실질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3.2%, 실질 총 민간 국내 투자 증가율은 3.9%로 이전 전망치 대비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상향.

3 월 한국수출은 YOY 3.1% 수입은 -12.3% 감소하며 무역수지 흑자 기록. 특히 반도체 수출 YOY 35.7% 증가하며 2022 년 이후 최고치 기록.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 년 3 월 이후 24 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 개월, 3 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 개월 만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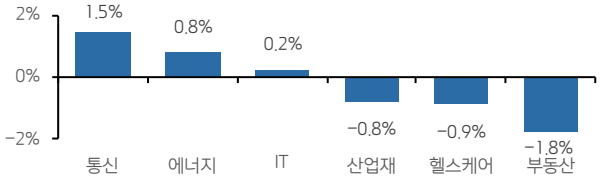
마이크론(5.4%) 중국 신공장 증설 소식에 강세. 또한 BOFA 에서 HBM 수요가 2027 년까지 200 억 달러(27 조원) 이상으로 성장하고 마이크론의 점유율도 현재 5% 미만에서 20% 중반으로 확대될 것을 근거로 목표주가 상향.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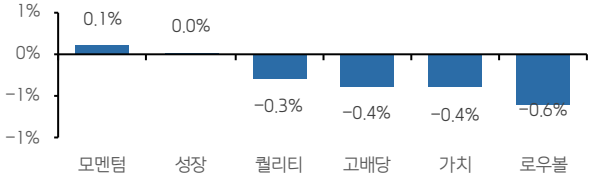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47.86	+0.04%	USD/KRW	1,349.19	+0.14%
코스피 200	374.28	-0.09%	달러 지수	105.02	+0.51%
코스닥	912.45	+0.77%	EUR/USD	1.07	+0%
코스닥 150	1,522.51	+0.14%	USD/CNH	7.26	+0%
S&P500	5,243.77	-0.2%	USD/JPY	151.61	-0.03%
NASDAQ	16,396.83	+0.11%	**채권시장**		
다우	39,566.85	-0.6%	국고채 3 년	3.292	-2.7bp
VIX	13.65	+4.92%	국고채 10 년	3.376	-2.6bp
러셀 2000	2,102.84	-1.02%	미국 국채 2 년	4.705	+8.5bp
필라. 반도체	4,962.10	+1.16%	미국 국채 10 년	4.309	+10.9bp
다우 운송	16,031.57	-1.11%	미국 국채 30 년	4.448	+10.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5,083.42	+0.03%	WTI	83.93	+0.26%
MSCI 전세계 지수	780.83	-0.35%	브렌트유	87.42	-0.07%
MSCI DM 지수	3,424.73	-0.38%	금	2270	+0.57%
MSCI EM 지수	1,042.07	-0.11%	은	25.2	+0.51%
MSCI 한국 ETF	66.60	-0.76%	구리	405.6	+0.1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53.5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ISM 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이 국내 증시의 상단 제약 가능성 2. 마이크론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로 인한 국내 반도체주 강세 여부 3. 한국 3 월 수출 부진에도 외국인 순매수 기조 지속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역대급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1Q 나스닥 +9.1% vs 코스피 +3.4%)는 지난주부터 힘이 다소 빠진 모습이지만, 지수 고점 부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령, 미국의 3 월 ISM 제조업 PMI(50.3 vs 컨센 48.1)는 원래대로라면 증시가 반길만한 재료이기는 했음. 하지만 3 월 가격지수(55.8 vs 컨센 53.3)의 서프라이즈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지수 전반에 걸친 차익실현 압력을 유발했던 것으로 판단.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당시는 6 월 금리인하 전망이 유효하며 4 월에도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의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 다만, 고용(5 일), CPI(10 일) 등 차주까지 예정된 매크로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증시 간, 또 각 증시 내 업종간 상승 탄력이 상이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 PMI 개선 및 그에 따른 리오프닝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한국의 3 월 수출 컨센 하회, 주중 미국 고용지표 대기심리 등으로 장 중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한 채로 마감(코스피 +0.04%, 코스닥 +0.77%).

금일에는 미 3 월 ISM 제조업 PMI 호조에서 기인한 미국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경계심리 등이 지수 상단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 업종별로는 HBM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마이크론(+5.4%) 포함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1.2%) 강세,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확대 등이 반도체 및 중국 소비 테마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를 연출시킬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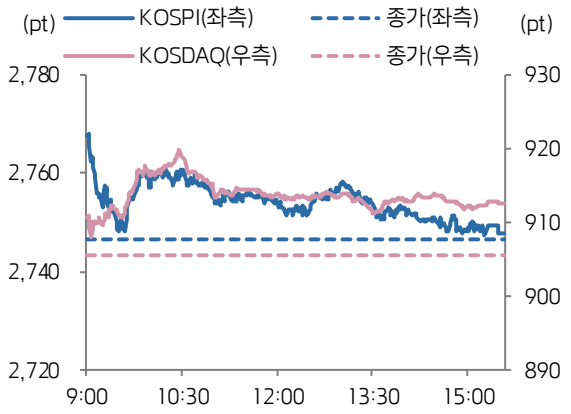
전일 발표된 한국 3 월 수출은 3.1%(YoY)로 지난 1 월 이후 2 개월 연속 수출 탄력이 둔화(1 월 +18.2% -> 2 월 +4.8% -> 3 월 +3.1%).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있긴 하지만, 컨센(4.2%)을도 하회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 아쉬운 부분.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1 월 +56.2% -> 2 월 +66.7% -> 3 월 +35.7%)도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점도 마찬가지.

다만, 전체 수출 실적 상 일평균 수출(1 월 +22.8% -> 2 월 +25.6% -> 3 월 +25.1%) 등 20%대 이상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안도 요인. 한국 수출에 선행하는 미국의 3 월 ISM 제조업 신규주문(2 월 49.2 -> 3 월 51.4), 중국의 3 월 제조업 신규주문(2 월 49.0 -> 3 월 53.0)이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 반도체 역시 수출 탄력이 둔화된 것이 사실이나, MS 와 오픈 AI 의 1,000 억달러 데이터 센터 구축 소식과 같은 신규 서버용 수요 창출 기대감 등 수출 모멘텀은 유효한 것으로 보임.

최근 외국인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되는데, 연초 이후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약 16 조원으로 역대 4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일에도 삼성전자 등 반도체를 약 2,700 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했던 상황. 국가 단위로 비교해봐도, 외국인의 한국 증시 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지난주 기준(3 월 21 일~27 일), 글로벌 주식형펀드는 한국을 약 30.3 억달러 순매수하면서, 직전 2 주동안의 순 유출세(누적 순유출 규모 -3.3 억달러)에서 3 주만에 순유입세로 전환. 반면, 지난주 같은 기간 동안 중국(-8.5 억달러), 인도(-5.2 억달러), 대만(-1.9 억달러), 인도네시아(-0.4 억달러) 등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자금 유출이 일어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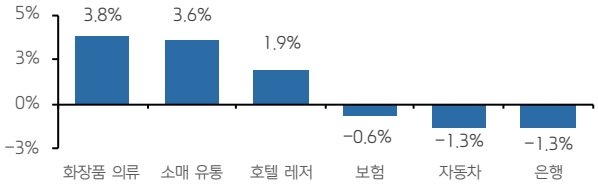
결국, "3 월 수출 부진 -> 1 분기 실적시즌 모멘텀 약화"라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 동시에 외국인이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실적 모멘텀 베팅을 쉽게 철회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중간중간 템포조절 형태로 단기적인 순매도세를 보일 여지는 있겠지만, 4 월 전반에 걸쳐 이들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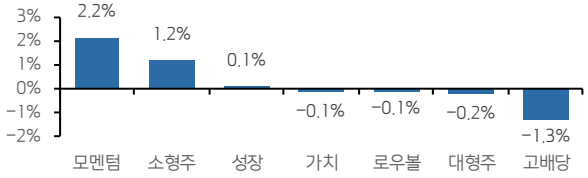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